

# 서 교육감, “호우 피해복구 신속히”

### 익산 옹포초·망성초 등 호우 피해 학교 차례로 방문... 도교육청, 비상상황실 운영·호우 피해 파악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익산 옹포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 군산 대성중학교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전했다. 먼저 옹포초는 학교 인근 야산 비탈면에서 토사가 쓸려 최근 조성된 학교 숲이 파손되고 운동장 배수구가 막혔다.

또 대성중은 야산 비탈면이 무너져 토사가 학교 안으로 쓸려 내려왔다. 망성초 교실에서는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학교 관계자 등과 피해 현황을 살피고 복구대책을 논의했다. 망성초에서는 인근 댐 방류로 강당에 피해 있는 주민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주 집중호우로 전북에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45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누수 피해가 35개 학교에서 발생했고, 벤치 파손 산 비탈면 붕괴, 관사 누전 등 다양한 피해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14일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시설점검을 요청하는 등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



서거석 교육감이 집중호우 피해 학교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교에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복구에도 신속히 나서줄 것”을면서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 점검 등 민간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장은성기자

## “전북교육 정책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

### 서거석 교육감, 학생의원들과 정담회... 교육감 취임 후 달라진 학교 변화 의견 나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5일 전주 시내 한 북카페에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출범 1주년 기념 전북학생의원-교육감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서거석 교육감이 기초학력 책임제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져온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를 주제로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전북학생의회 출범 1주년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서거석 교육감의 기타 공연과 학생의원들의 랩·노래 공연, ‘교육감님을 이겨라!’ 게임과 퀴즈, MZ댄스 따라하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어 2부 ‘Talk Talk 콘서트’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제와 미래교육 환경 구축, 교권과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주제별로 서 교육감과 학생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지수진 학생의원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늘어나고, 해외문화 교류 등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전주 시내 한 북카페에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출범 1주년 기념 전북학생의원-교육감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조경준 학생의원은 “기초학력 평가 실시 외에는 아직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에듀테크 사업으로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수업 능률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현호 의장은 “희망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교육감님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정기회에서 학생의원

들이 제안한 교육정책이 2024학년도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함께해 준 전북학생의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전북학생의회가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도교육청,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 모의 훈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재난상황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 시 화상영역 조정, 학생 및 학교 시설 피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

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훈련에는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919개교가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교육부에서 학교 담당자의 휴대전화로 알림톡 및 메일을 전송하면 해당 URL에 접속해 피해 상황

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피해상황은 화상영역 조정·인명피해·시설피해 등 세 가지로 보고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에 신속·정확한 보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 능력 습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하반기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화상영어 홈클래스 무료 운영

### 도교육청, 내달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북 e학습터 활용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함께하는 화상영어 홈클래스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영어 홈클래스는 전북교육청 소속 원어민영어보조교사(148명)를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과의 여객과 거리감을 해소하고, 실용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업은 방과후인 오후 5~9시까지 전북 e학습터 화상수업방을 이용해 20분간 운영된다. 특히 영어 말하기 교재를 기본으로

1대 1부터 최대 1대 3까지 신청 학생의 희망에 따라 빈이 편성되며, 학생들은 일주일에 2회씩 19주에 걸쳐 화상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https://naver.me/GdM4U7U>)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고, 미선정 학생은 예비반으로 편성해 결원시 충원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 ‘1회용품 대신 머그컵·텀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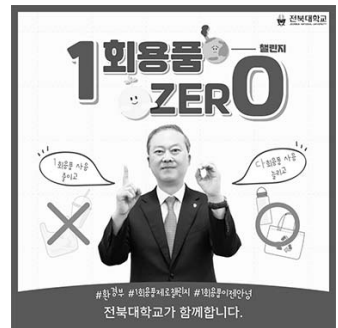
### 양오봉 전북대 총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1회용품 제로 챌린지’(1 #0)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환경 보호 운동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이번 환경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와 같은 환경 보호 운동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 혁신 과제인 새만금의 희망이 될 새만금 지역에 K-방위산업과 2차전지, 센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양 총장은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을 추천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 교수, 학생, 직원이 1회용품 대신에 개인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 운동,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겠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이 지역사회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 도교육청 “내년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할 것”

### 도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추진, 도내 중학교 중 희망학교 대상 총 190일까지 지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내년부터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두뇌활동을 활성화해 학습성취도를 높이고, 점심 폭식을 예방해 올바른 식생활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022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의 아침결식률은 4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자녀의 아침을 챙겨주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교직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도내 중학교 중 희망학교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일 3,000원씩

연간 총 19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간편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견수령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창조대 회의실에서 도내 중학교 교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의 아침결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아침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정에서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간편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더불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 리빙랩 기반 한문화콘텐츠 커플링사업단은 지난 13~14일 1박 2일간 실시한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전주대 한문화콘텐츠 커플링사업단 워크숍

전주대학교 리빙랩 기반 한문화콘텐츠 커플링사업단(단장 고기환)은 지난 13~14일 1박 2일간 실시한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학생 실무현장 능력 배양을 위해 사후관리 및 신화협력운영위원회 워크숍을 마련, 20여 명의 학생과 기업체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졸업생인 전문가(네이버 웹툰 백면 작가, 모아지오 전명훈 박보선)초청 특강을 통해 웹툰 작가의 생생한 제작 스토리와 게임, VR, AR 미디어 파사드 제작에 필요한 실무 제작 노하우 공유와 전문 지식에 대해 배웠다. 선배들의 피드백을 통해 진로 계획을 선

계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기환 단장(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능력을 알 수 있었고, 이후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리빙랩 기반 한문화콘텐츠 커플링사업단은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문화융합대학 게임콘텐츠학과, 산학디자인학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3~4학년 학생을 선발해 1년간 인성, 전문 실무능력 등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기자